

# 한동훈, 사퇴 방어로 '홀로서기' 일부 성과...갈등 불씨 남아

### 김웅 "미세하게나마 한 위원장 이득...버터내" '김경울 사천·김건희 명품백 논란' 이견 여전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논란 등에 대해 용산과는 다른 톤의 목소리를 내면서 사퇴 요구까지 받았지만, 결과적으로 자리를 지켜냈다.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를 시도한 한 위원장 입장에서는 성과를 거둔 것이라는 평가다.

하지만 김 여사 사퇴에 대해선 윤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감안해 한 위원장이 더 이상 언급하지 않는 '암묵적 동의'로 한발짝 물러섰다. 김 여사 사퇴와 '갈등 촉발자' 김경울 비대위원의 거취는 향후 양측 갈등의 불씨가 될 전망이다.

김웅 의원은 이날 오전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의 갈등 해소 국면에 관한 질문에 "미세하게나마 한 위원장이 이득을 얻었다. 왜냐하면 버터내다는 걸 가져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버터 내는 것보다는 대통령이 과거와 같은 정도의 병력 동원에 실패했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는 김기현 전 대표와 나경원 전 의원이 물

러날 때 벌어진 이른바 '연판장' 사태를 염두에 둔 발언이다. 당시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여론 조성이 이뤄졌는데, 이번에는 앞선 사례와 달리 당내에서 친윤들의 호응을 얻지 못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사퇴 요구 다음 날인 지난 22일에는 친윤(친윤석열)계 의원을 중심으로 이를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가 열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결국 의원총회는 열리지 않았고 당정 갈등은 화해 국면으로 넘어갔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은 전남 충남 서천특화시장 화재 현장을 살피면서 화해 무드를 조성했다. 이후 함께 대통령 전용열차를 타고 서울로 복귀하면서 갈등이 봉합 수순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그러나 이번 논란의 시작점이었던 김경울 비대위원 사천(私薦)과 김 여사 명품백 논란에 대한 양측의 입장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은 잠재적 뇌관이 되고 있다. 현재 당내에서는 김 비대위원의 사퇴와 김 여사의 사과가 총선에 미칠 영향을 두고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상황이다.

두 사람이 열차 안에서 이에 대한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눌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지만, 민생 지원책에 관한 논의가 주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갈등 봉합을 원하면 두 분이 나섰던 이야기가 나올 것이고, 서로 의견이 달랐다면 얘기가 안 나올 것"이라며 "안 나온다면 만난 소득이 없다고 봐야 하지 않겠나"라고 전했다.

한 위원장은 당분간 이에 대한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듯하다. 바뀌 말하면 이전과 달라진 점은 없다는 뜻이다.

그는 이날 오전 국회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비대위원 사퇴가 출구전략이 될 수 있지 않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그런 이야기를 들은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여러 논란에 대한 김 여사의 사과가 필요한지를 묻자 "지금까지 말한 것에 대해 더 말하지 않겠다"고 일축했다.

이에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의견도 있다.

윤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신평 변호사는 같은 날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이런 갈등의 깊숙한 곳에 내재된 원인이 있다"며 "그 원인을 해소하지 않고 두 분이 만난다고



해서 또는 밥 한번 먹는다고 해서 그 갈등이 해소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는 "어떤 오해가 생기고 이견이 있으면 직접 전화하거나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금방 풀릴 일

을 제3자가 나서서 하다가 일이 어려워지게 된 것"이라며 "앞으로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자주 서로 연락을 주고받아서 이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면기자

## 광주 북구의회, 입법·법률 고문 위촉

#### 입법고문 최민수 교수, 법률고문 김성진 변호사 위촉



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고문제도를 운영해오고 있다.

이번에 위촉된 입법고문 최민수 교수(합동조합 지방의정연구원)와 법률고문 김성진 변호사(광주지방변호사회)는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위촉일로부터 2년간 북구의회에서 발생하는 입법·법률 사안 및 정책에 관

한 자문,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입법·법률 자문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김형수 의장은 "복잡·다양해지고 있는 행정 수요 속에서 전문적인 역량을 가진 고문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고문들의 역량을 십분 활용하는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구민 권익 증진에 더욱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슬비기자

## 민주, 군 총선공약으로 당직비·주택자금지원 등 복지개선

#### 예비군 동원훈련기간 단축 및 훈련보상비 현실화도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4·10총선을 맞아 군 장병 당직비 인상, 초급간부 전·월세 이차지원 확대, 교육여건 개선 등 복지 확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예비역을 위해 동원훈련기간 단축 및 동원훈련보상비용을 현실화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민주당 정책위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키는 평화를 넘어 평화를 만드는 유능한 군대, 미래 안보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처하는 강한 군대 건설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군 복무에 전념할 수 있는 복지여건 마련 ▲국민 눈높이에 맞는 안정적 국방정책 추진 등 두 공약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장병복지 여건 개선을 위해선 사병·부사관·장교·군무원 등 장병들의 당직근무비를 평일 3만원, 휴일 6만원인 일반공무원 수준으로 인상하고, 20년 이상 근무한 하사 이상

군인 및 군무원을 대상으로 1인당 30만원 수준의 종합건강검진비를 격년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부대 내 숙소에 살고 있는 하사 이상 초급간부에 한 해 영외 거주가 가능하도록 전·월세 이차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월 16만원 수준의 주택수당과 전·월세 이차지원을 확대 시행함으로써 '개인 주거 선택권'의 다양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현행 'e-러닝 원격강좌' 참여대학을 대폭 늘리고, 수강료 지원 규모도 확대하겠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현행 원격강좌에는 지난해 기준 179개 대학이 참여하고, 학점인증을 참여대학은 82개 대학이다. 1학기당 6학점, 군 복무기간 최대 18학점 취득 가능하며 수강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었다.

학점인증을 참여대학을 대폭 늘려 장병들

의 학업 불균형을 해소하고, 수강료도 기존 80% 지원에서 100% 지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사병들의 휴대전화 요금할인 비율을 20%에서 50%로 인상하겠다고 했다. 통신사와 정부가 5 대 5로 비용을 부담하고, 요금할인 50% 확대와 선택약정할인 25%를 받게 되면 실질적으로 75% 할인 효과를 체험할 수 있을 거라는 게 민주당 정책위의 설명이다.

예비군을 위한 동원훈련기간 단축, 장병급여 인상폭에 맞춘 훈련 보상비 현실화도 공약도 공개했다.

현행 예비군 동원훈련은 4년차까지 2박 3일(28시간) 동안 진행되는데 이를 3박4일(32시간)으로 확대하고 3년차까지만 동원훈련에 참여토록 한다는 내용이다.

훈련보상비는 장병급여 인상 수준에 맞춰 16만원까지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김수권기자

##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 전국 꽃배달 서비스

# 60,000

###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